

국제갤러리, 8월 30일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Anish Kapoor》 개최

기자간담회: 2023년 8월 30일(수) 오전 11시

전시기간: 2023년 8월 30일(수) - 10월 22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K1, K2, K3

“핵심은 무엇이 물질적이며 무엇이 그 물질을 초월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모든 작가가 하는 일의 본질이자 미술의 주요한 방법론적 지향점이다.” - 아니쉬 카푸어¹

국제갤러리는 8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제갤러리에서의 네 번째 개인전으로, 서울 K1, K2, K3 전 공간에 걸쳐 조각, 페인팅, 드로잉을 망라하는 작가의 다채로운 작업을 폭넓게 소개한다.

‘21세기 가장 선구적인 작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니쉬 카푸어는 작년 베니스에서 혁신적 작업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펼쳐 보이는 대규모 전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증명한 바 있다. 특히 베니스 전시에서는 카푸어가 근래 집중해오고 있는 매체인 회화를 그의 대표적인 검정 작품들과 병치해 선보임으로써 시각예술의 물리적, 개념적 한계를 꾸준히 시험하는 작가의 능력을 강조했다. 카푸어에게 그 검정 작품군은 회화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고찰과도 교차되는데, 작가에게 회화란 “무언가를 가시화하는 방식에 대한 역사인 반면, 나는 그와 정반대의 일, 즉 무언가를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천착했던 것이다.”²

이번 개인전에서도 작가는 회화와 조각에 대한 이 같은 접근법으로 전시를 꾸리는데, 서울점 K1에서 K3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성격의 건축 공간을 활용, 작품들 간의 새로운 대화를 제안하며 자신의 작업 전반에 걸쳐 강조되는 ‘신체’에 대한 집중력을 피력한다. 다채로운 재료로써 다양한 모양새의 추상적 제스처를 소개하는 본 전시는 궁극적으로 생(生)의 숭고한 격렬함, 즉 아니쉬 카푸어의 형식 언어를 구축하는 핵심 자원인 생의 맹렬한 숭고미를 일관되게 읊조린다.

K3에는 네 점의 거대한 조각이 설치된다. 특정 유형으로 범주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 무거운 덩어리들은 지질학적 조직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해부학적 내장의 모양새에 기대기도 한다. 카푸어를 대표하는 색채인 진한 빨강과 검정을 입은 조각 작품들 중 특히 두 점은 <그림자(Shadow)>와 <섭취(Ingest)>라는 제목을 통해 작업의 맥락과 영감의 원천을 넉넉히 가리키기도 한다.

한편 K2에서는 전시 전반에 펼쳐지는 작가의 문법을 한데 농축해 놓은 회화 작품들이 소개된다.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폭발적으로 표현주의적인 이 회화 작품군은 유화, 섬유유리 및 실리콘으로 제작돼 날것의 상태를 구현하며, 비단 유희이 낭자한 내장을 연상시킬 뿐 아니라 존재의 개화를 암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물감이 캔버스 위에 흠뻑 뿌려진 듯한 모양새의 회화 안에서 우리는 마치 엄청난 무력에 의해 그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흐려진 물질의 존재를 감각하며 신체의 다공성 경계에 대한 작가의 지속되는 관심을 엿보게 된다.

¹ Thibaut Wychowanok, 「Anish Kapoor dissects the bowels of the world in Venice」, 『Numéro Magazine』 (2022년 6월 1일), <https://www.numero.com/en/art/anish-kapoor-venice-visconti-freud-psychoanalysis>.

² 위의 잡지

이와 같은 주제는 K1 바깥쪽 전시 공간에 설치된 과슈 작품을 통해 다소 절제된 방식으로 고찰된다. 회화에 비해 작은 크기로 제작되는 이 종이 작품들은 캔버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혼돈 안에 문 내지는 창문을 암시하는 어떤 공(空)의 영역을 묘사한다. 창에 대한 기하학적 환영은 작가가 조각 및 회화 작업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장치로,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작품 안에 투영시켜 자신이 놓인 환경과 대면하는 신체의 불안정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작가는 K1의 안쪽 전시장에 놓인 검정 작품들을 통해서도 비슷한 현상을 꾀한다. 카푸어를 대표하는 검정으로 염색된, 뒤틀어진 기하학의 이 오브제들은 관람자의 시각을 어지럽히며 그 내부의 공간으로 끌어당긴다. 해당 검정은 빛 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마저 흡수시키는데, 이로써 각 오브제의 표면, 그 피부에 조용히 안착해 일체화된다. 카푸어의 검정 작품 연작은 극도로 차분하지만, 이 독특한 매체가 구현하는 형태의 흡수력은 회화의 날 선 빨강의 이미지들 못지 않게 잔혹하기도 하다. 오브제의 경계선이 우리 눈 앞에서 용해됨에 따라 서서히 피부가 없는, 껍질이 없는 물질이 되고, 이는 극히 원초적이고도 불안정한 감각을 촉발한다. 이처럼 현존과 부재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카푸어 작업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다.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카푸어는 그 물질의 창출 및 파괴를 동시에 고찰하고, 나아가 관람자의 신체적 감각을 시험해 지극히 자극적이고도 시적인 '사이(in-between)'의 상태를 포착해낸다.

작가 소개

아니쉬 카푸어는 1954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런던과 베니스에 거주 및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최근 이탈리아 베니스의 갤러리 델 아카데미아 디 베네치아와 팔라조 맨프린(2022), 영국 옥스포드 현대미술관(2021), 중국 선전 현대미술 및 도시계획 박물관(2021), 영국 노포크 호턴 홀(2020), 독일 뮌헨 모던 피나코텍 미술관(202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펀다시온 프로아(2019), 중국 베이징 중앙 미술관 및 황실 사원 아카데미(2019), 포르투갈 포르투 세랄베스 현대미술관(2018), 멕시코 시티 현대미술관(2016),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2015)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1990년 제44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국 대표 작가로 참여해 <Void Field> (1989)를 선보이며 프리미오 듀밀라(Premio Duemila)를 수상하였고 이듬해 영국의 권위 있는 예술상인 터너 프라이즈(Turner Prize)를 받았다. 카푸어의 작품은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돼 주요 상설전시로 소개되고 있으며, 고유한 공공미술은 전세계 곳곳에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본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의 기사는 **기자간담회가 끝난 이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시기간 내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 ID: kukjegallery | PW: kukje

KUKJE GALLERY | COMMUNICATIONS

T +82 2 3210 9807 | press@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53 KOREA

T + 82 2 735 8449 | F + 82 2 733 4879 |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 8월 30일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Anish Kapoor》 개최



아니쉬 카푸어(b.1954)

〈In-between II〉

2021

Oil, fibreglass and silicone on canvas

244 x 305 x 46 cm

© Anish Kapoor. All rights reserved DACS/SACK, 2023

사진: Dave Morga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아니쉬 카푸어(b.1954)

〈In-between〉

2021

Oil, fibreglass and silicone on canvas

244 x 305 x 62 cm

© Anish Kapoor. All rights reserved DACS/SACK, 2023

사진: Dave Morga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아니쉬 카푸어(b.1954)

〈Tongue〉

2017

Silicone, paint on canvas

244 x 183 x 110 cm

© Anish Kapoor. All rights reserved DACS/SACK, 2023

사진: Dave Morga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아니쉬 카푸어(b.1954)

〈Untitled〉

2021

Oil, silicone and wood on canvas

244 x 305 x 76 cm

© Anish Kapoor. All rights reserved DACS/SACK, 2023

사진: Dave Morga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아니쉬 카푸어 스튜디오 전경
2017

© Anish Kapoor. All rights reserved DACS/SACK, 2023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